부산상공회의소

【보도일시】
2025년 4월 16일(수) 배포즉시

보 도 자 료

담 당 : 진흥통상팀 조 재 완 팀장
(990-7062)

제271차 부산경제포럼 개최

2025년 환율 및 자산시장의 전망

▶ 홍익희 전 KOTRA 무역관장 특별 강연에 지역기업인 등 190여명 참석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16일 오전 7시, 부산롯데호텔에서 '2025년 환율 및 자산시장의 전망' 이라는 주제로 제271차 부산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오늘 포럼에는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을 비롯하여 강동석, 신한춘, 박사익 부회장 외에도 이오상 KNN 사장, 박진현 KBS부산총국장, 이상천 동명대학교 총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역기업인 19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강연을 맡은 홍익희 전 KOTRA 무역관장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 정책이 부동산, 채권, 주식,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향후 경제 흐름을 전망했다.

홍익희 무역관장은 강연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지만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등 기존의 패턴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초래할 위험을 나타내는 신호라며, 불확실성에 대한 섣부른 예측보다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미국의 재정정책 변화와 금리 기조, 글로벌 환율의 방향성은 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전략과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며,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 강연이 지역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강석호 센터장은 "오늘 강연내용처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기일수록 스타트업들은 정부지원과 선배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불확실성에 빠르게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